기획 연재

漢字도 우리글 ㊼

權 光 旭
小說家

⑩ 첩자疊字 · 겹말, 동의어 반복(承前)

여러 해 전 일본에서 세계 초일류로 만든 분자생물학 도해 서적을 번역 출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초벌 번역자가 그 한자용어를 같은 우리말 한자어로 옮겨 조판하였는데 교열 과정에서 이를 거의 새로 번역하다 싶이 영어휘로 바꾸어야 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다 쓰던 말인데 요즘 학생들이 이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가령 습마진濕痲疹 따위는 두드러기로 쉽게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의학、생물학 용어는 영어가 아니고는 난해하여 접근시킬 길이 없었다. 나는 또 한 20년 전에 병원에 가서 ‘ 담이 들었다 ’고 했다가 ‘ 담이 뭐냐, 근육통이라 하라 ’는 의사의 신칙을 듣고 무안했던 기억도 있다. 그런데 이제 담痰도 근육통筋肉痛도 안되고 ‘ myalgia ’라 해야 통하는 세상이 되지나 않을까.

한시漢詩는 지을 때 오언률五言律이면 40자, 칠언률七言律이면 56자를 고르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자가 폐지되었지만 한문 서예를 하는 인구가 매우 많고 한시를 짓는 동아리의 회원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이 다 지하에서 움직이듯 언론에 외면당해 그렇지 아마 수천에 이르는 우리말 현대시 인구에 필적할 것이다. 그 한시를 짓는데서 첩자疊字를 쓰면 대번에 실격失格이다. 첩자란 오언률 40자나 칠언률 56자에서 똑같은 자를 거듭 쓰는 것이다. 그러나 정정丁丁 또는 백백白白、낙락落落 같이 같은 자가 거듭하여 말이 되는 첩어疊語의 경우는 예외이다. 우리말에서 드문드문、뚜벅뚜벅 등으로 같은 말을 연쇄반복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과 음이 같아도 글자가 다르면 괜찮다. 연連과 연聯의 음이 같은 평성平聲이고 용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뜻이 같다. 그러나 글자가 다르므로 한 수首에서 각기 한번씩만 쓴다면 일이 없는 것이다. 도道와 도途에 이르면 뜻이 거의 같지만 글자가 약간 다른데다 성조聲調가 달라서 더할 나위가 없어진다. 한문에서는 이 첩자 금지의 원칙이 지엄하여 운문에서만이 아니라 줄글, 즉 평서산문平敍散文에서도 예외나 가차가 없었다. 명사나 형용사형으로 같은 자의 거듭 사용을 극도로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사가 조사助詞로 거듭 써야 할 경우에는 같은 자를 앞에서 행서行書로 썼다면 다음에서 해서楷書, 그 다음에는 초서草書나 약자略字 등으로 써서 이를 피해보고자 하니 이는 사람의 언어 구사 능력에 만유萬有하는 원초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를 할 줄 알아야 글을 짓고 쓰기에 앞서 말부터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누가 말을 자꾸 더듬으면 상대가 속이 터지는 압박을 받아 대화가 깨진다. 이 첩자는 첩어와 다른 개념으로서 그 효과는 말을 더듬는 것과도 같다.

영어는 대명사가 발달하여 더욱 한 문장에서 같은 말이 두 번 쓰인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 그들 말에는 관계대명사까지가 잘 활용되고 있어 다음 절이나 문장으로 넘어가면서도 주격、목적격 명사가 거듭 쓰일 길이 없다. 가령 ‘ This 나 That is a book ’이지 ‘ The book is a book ’ 따위로는 그들이 말이 터지면서부터 쓰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말도 실은 마찬가지여서 ‘ 이것은 책이다 ’라고 하지 ‘ 이 책은 책이다 ’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 이 책 ’을 ‘ 이것 ’이라 한 것은 지시대명사이다. ‘ 이것 ’에서 또 ‘ 이 ’만 떼면 이는 지시관형사이다. 지금 우리말에서 이같은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떨어지면서 한국어는 급격한 퇴화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동의어 반복의 돌림병이 만연하여 그 용도가 폐기되고 있는 것이다. 말더듬은 어휘 구사 능력의 장애와 부족에서 생기는 병이다. 그리고 이 동의어 반복의 돌림병은 우리말 어휘를 닥치는대로 폐기함에서 말미암는 재앙이다.

우리말에서 비슷한 개념의 낱말로 ‘ 겹말 ’이 있다. 겹문자라고도 하며 한자어의 첩어疊語와는 또 다르다. 같은 뜻의 말이 겹쳐 되는 것으로 ‘ 육교陸橋다리 ’、외가外家집 ’、역전驛前앞 ’ 따위가 그것이고 ‘ 손녀孫女딸 ’、의붓義父아비 ’도 마찬가지이다. 육교의 교橋가 이미 다리인데 거기에 다리를 또 붙이니 식자는 그리 쓰지 않는 비속어이고 그나마 문어文語로는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등용문登龍門이라도 하여 문단에 나온 듯 행세하는 문인도 처갓집、외갓집은 예사로이 시나 소설에 쓰고 그런 말이 국어사전에도 버젓이 올라 있다. 그러나 내가 소시에 학교에서 박두진朴斗鎭의 명시 ‘ 해 ’를 배울 때 나오는 ‘ 동해東海 동녘바다 ’의 대목에서 당시의 국어교사는 이것이 그 시인만의 특권으로, 그 부분을 굴리는 표현으로 쓴 것이므로 아무데서나 따라하면 안된다고 가르쳤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국어교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언제 어디에서 ‘ 산불이 나서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 장비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산불을 진화했다. ’ 이것은 2006년 늦가을 한 서울의 일간신문에 난 기사를 그대로 따 옮긴 것이다. 이 한 문장에서는 ‘ 산불 ’이라는 낱말이 네 번 쓰이고 ‘ 진화 ’가 세 번 쓰였다. 요즘 신문기자 시험을 ‘ 언론고시言論考試 ’라 하고 ‘ 고시 ’라 하면 옛적 문과급제와 대개 동일시한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그런 고시를 했고 이를 편집한 기자와 교열한 기자가 또한 같은 급제자일 것이다. 글을 이런 솜씨로 지어 가지고 옛적에 과거에 급제는 말고 과장科場에 들어갈 수나 있었을까. 아무리 이 기사가, 그 신문에 실려 나가게 하는 과정에 참여한 3인 이상의 기자가 쇠망치질을 해 보았자 그 머리에 실금도 안갈 석두石頭라 하더라도 이는 고의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말을 아예 망치려는 악의가 아니고 어찌 이런 짓이 가능할 것인가. 이 문장에서 네 번이나 거듭 들어간 ‘ 산불 ’은 처음 한 번만 쓰면 된다. ‘ 산불이 나서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진화 장비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 다시 ‘ 진화鎭火 ’가 세 번 쓰였으니 이것도 한 번으로 줄인다. ‘ 산불이 나서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동원에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거나 그저 ‘ 산불이 나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처음 이 문장의 41자 길이가 30자로 줄어든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 한 문장에서 5개 어휘 11자를 부질없이 더듬어 독자를 괴롭혔다. 언론 기사는 단축, 절삭형으로 쓰는 게 생명이다. ‘ 하고 ’나 ‘ 하여 ’ 따위 접속조사를 생략하고 ‘ 진화했다 ’ 등의 동사 어미도 잘라 ‘ 진화 ’로 끝의 글자 수를 줄이느라 손끝이 닳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삼중사중으로 더듬는 기자가 지난날 요행으로 서울 장안의 어느 신문사 편집국에 발을 들여놓았더라면 아마 수습 시절에 정강이가 차여 쫓겨났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 편집국은 이런 얼뜨기 기자로 가득차서 어디에도 이를 검증할 안목과 두뇌가 없다.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부터 고속열차 KTX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차의 안내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번에 내리실 역은 안국역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도착하실 역은 대전역입니다. ’ 해방후 60년토록 이 말은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영어로 되풀이해줄 때는 ‘ This stop is 안국 ’이나 ‘ This station is 대전 ’이라고 하여 절대로 ‘ 역 ’이란 말을 두 번 쓰지 않는다. 우리말로는 죽어라고 ‘ 역 ’을 두번씩 넣는다. 이를 꼬박꼬박 두 번 넣지 않으면 큰일날 줄 안다. 우리나라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은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산다. 전철이 서울역앞에 이르러서는 어쩌는지 궁금해 들어보니 ‘ 서울역역 ’이라고까지는 할 염치가 없었던지 ‘ 이번 정차할 역은 서울역 ’이라고 하여 그나마 안심이었다. 혹시 일본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싶어 그리 여행가는 집아이에게 귀띔했더니 돌아와 하는 소리가 그들 전철의 안내 방송에서는 ‘ 역 ’이란 어휘를 두번 쓰지 않더라 했다. 우리말의 품위가 일본에도 뒤지는 게 이와 같은가. 사람들은 이런 식의 첩자 표현을 시도때도 없이 듣고 살아 그게 정형인 줄로 알아 인이 박히고 습관의 최면에 빠진다. 일제가 패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말은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발전은 멈추었을 것이다. 그 대신 이렇게 개떡으로 망가지지는 않고 순결함이 남아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비감이 온다. 일본어가 공용화되었더라면 우리땅에서 말이 이렇게 천박하고 저질화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고질을 고치는 길은 없을 것이니 이래저래 영어를 도입해 국어화하는 도리가 첩경이 아닐까.

시대時代는 때라는 시時와 일정 기간인 대代가 합쳐 된 말이니 그 자체에 때와 기간이 들어 있다. 거기에 때를 더하여 ‘ 시대때 ’라고 한다. 옛적에 몽매한 문맹이 ‘ 역전驛前 ’에다 꼬박꼬박 ‘ 앞 ’을 붙이듯이 시대에다 때를 붙인다. 그러기를 마치 토씨 ‘ 에 ’ 대신 더하여 쓰듯하니 ‘ 시대에 ’라 제대로 나오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다. 사계斯界의 석박사를 받고 가르치는 역할로 밥을 먹는 학자가 ‘ 고려 시대때 ’、일제 시대때 ’라고 하는 입버릇을 거침없이 써버릇 한다. 겹말에 인이 박힌 나머지 시時자만 보면 때를 붙이는 게 조건반사가 되다 보니 ‘ 유사시有事時 ’에도 때를 붙이는 이가 있다. ‘ 초가집 ’、처갓집 ’은 몽매의 힘으로 예외가 되었어도 그렇다고 ‘ 역전앞 ’、시대때 ’도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예외란 언어에서 조금만 허용되어야지 그게 전체가 되어서는 이미 예외가 아닐 터이다.

‘ 기간期間 ’은 때나 기회에다 사이가 합쳐 되었다. 한자 몽매가 여기에 ‘ 동안 ’을 꼬박꼬박 갖다 붙여 지금 구어든 문어든 ‘ 기간동안 ’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 우리 식자들이 지금 ‘ 기간 ’이라는 말을 꺼내고 거기에 ‘ 동안 ’을 덧붙이지 않으면 무엇을 빼놓고 잊은 것 같아 허둥대며 수전증手顫症이 난다. 그래서 그냥 ‘ 기간에 ’라고 순하게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제법 말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 내內 ’를 붙여 ‘ 기간내期間內 ’라고라도 한다. 그러면서 ‘ 기일내期日內 ’는 겹말이 아니지만 ‘ 기간내 ’는 겹말인 것을 모른다. 한자를 폐지했으면 사용치 말고 우리말로나 바꾸어 쓰면 우환이 덜할 터인데 문자를 쓴답시고 갈수록 한자 어휘를 더 쓰면서 이 뭣하는 짓인가. 그 가관인 것을 이루 다 매거할 수가 없다. 이 고황膏肓에 든 병을 이제 한자 폐지가 아니라 한국어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 시간에 ’라면 될 것이 ‘ 시간 안에 ’라야 직성이 풀린다. ‘ 빈도頻度 면 될 것이 거기에 ‘ 수數 ’가 더 붙어 ‘ 빈도수 ’가 되며 이것이 또한 표준어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 ‘ 성패成敗 ’를 가리면 될 것을 거기에 ‘ 여부與否 ’를 덧붙여 ‘ 성패여부 ’라 한다. 발견發見은 처음으로 보는 것인데 접두어 ‘ 첫 ’을 면상에 덧붙여 ‘ 첫발견 ’이라 한다. 세상이나 현실로 나갈 때 ‘ 세상으로、현실로 ’라 하던 것을 ‘ 세상 속으로、현실 속으로 ’라 하며 영어의 전치사 기능을 정착시키려는 강박관념에 빠진다. 같은 용법으로 상황狀況과 환경環境도 상황속이고 환경속이라야 한다.

절찬리絶讚裡、인기리人氣裡도 그저 두지 못하여 절찬리속、인기리속이다. 기간중期間中 따위의 중中이 겹말이지만 이는 자연스레 관용화한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절찬리、인기리의 리裡는 ‘ 속안 ’의 뜻이고 ‘ 뒤안 ’의 뜻인데 거기에 속을 또 붙인다. 세상속이나 시장속 등의 속으로는 또 들어가거나 파고들어야지 나가거나 나오는게 아니지 않는가. 심지어 거리의 당구장撞球場 건물 벽에 ‘ 당구속으로 ’라는 현수막이 나붓긴다. 당구는 부피가 주먹보다 작고 돌보다 단단한 공인데 사람더러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인가. 이런 표현이 만연되어 우리말의 질이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세상속으로 나왔다는 것보다 더 못할 소리이다.